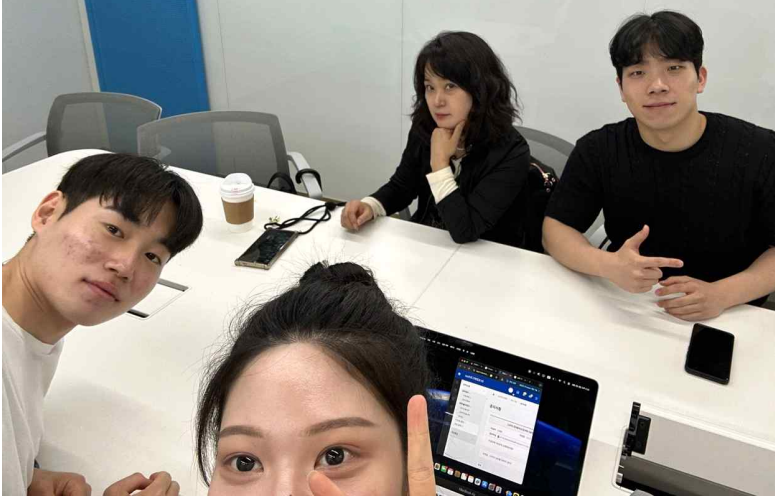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리드미

1주차	일시	5월 2일 13:30 공학관 A동 코딩라운지 110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단비(2211181)	O
		정웅(2271209)	O
		안예찬(2071158)	O
	진도	도서명: 도둑맞은 가난	진도페이지: 1p. ~ 15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정웅, 윤단비, 안예찬]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모임 개요: 첫 번째 모임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도둑맞은 가난』의 도입부를 함께 읽고, 저자가 보여주는 ‘가난’의 정서적, 심리적 층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세 명의 팀원은 각자의 삶의 경험과 감정을 빚대어 ‘가난’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새롭게 받아들이며, 특히 제목에 담긴 모순적인 표현 "도둑맞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팀원 개인 소감: 윤단비: 박완서의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도리어 더욱 격렬하게 다가온다. “가난을 잃었다”는 표현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가난이란 대개 벗어나고 싶은 것인데, 작가는 그것조차 빼앗겼다고 말한다. 그 말 속에는 존재의 뿌리가 뽑힌 상실감과 자기 부정이 서려 있다. 나는 이 문장을 통해 내가 지나쳐 온 일상의 무심함을 돌아보게 되었다. 정웅: 도입부에서 작가가 묘사하는 전쟁 직후의 삶은 단지 배고프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위태로워지는 상태였다. 가난은 물질적 결핍만이 아니라, 문화와 감성, 인간관계마저 왜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난을 단지 경제적 문제로만 인식해왔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안예찬: 나는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묘한 품위에 주목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결코 비루하지 않았던 삶. 특히 어머니의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섬세함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익숙했다.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전후 한국의 가난은 단지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감정의 보고라고 느꼈다.	

2주차	일시	5월 9일 16:00 공학관 A동 상상파크 플러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단비(2211181)	O
		정웅(2271209)	O
		안예찬(2071158)	O
	진도	도서명: 도둑맞은 가난	진도페이지: 16p. ~ 23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안예찬, 유상미 교수님, 정웅, 윤단비]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팀원 및 지도교수 개인 소감: 윤단비: 주인공이 어린 시절 겪는 배고픔이나 결핍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 건, 그가 느끼는 부끄러움이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주입된 감정이며, 나아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나는 이 부끄러움의 정체가 단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부여한 ‘수치심’이라는 구조적 감정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정웅: 교수님 말씀대로, 이 작품은 단지 자전적 회고가 아니라 시대의 문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다. 박완서가 보여주는 여성의 삶은 결코 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며, ‘이야기될 수 없었던 역사’를 발굴해내는 작업이다. 특히 글 속에 흐르는 미묘한 자조와 유머는 가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견디게 만드는 일종의 ‘정신적 생존기제’처럼 느껴졌다. 안예찬: 주인공이 점차 어른의 시선으로 세상을 인식해가는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 인식은 축적된 고통의 총합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련된 슬픔이다. 나는 그 슬픔이 문장의 리듬 속에 고요히 녹아 있는 방식에 감탄했다. 교수님이 지적하신 “사회화된 결핍”이라는 개념이 내게는 매우 큰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유상미 지도교수님: 『도둑맞은 가난』은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급변기를 거처온 여성 작가의 섬세한 사유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가난’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통해 기억, 성별, 계급, 사회 시스템의 단면을 동시에 조망하게 한다. 학생들이 이 작품을 통해 단지 과거를 재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재의 구조를 질문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인상 깊었다.	

3주차	일시	5월 14일 16:30 공학관 A동 세미나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단비(2211181)	O
		정웅(2271209)	O
		안예찬(2071158)	O
	진도	도서명: 도둑맞은 가난	진도페이지: 24p. ~ 29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윤단비, 정웅, 안예찬]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모임 개요:서사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이번 구간은 주인공의 내면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어린 시절의 감정들이 성찰적 언어로 재해석된다. 독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인공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 깊은 토론을 나눴다. 또한 이 시점에서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제목이 서사 전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팀원 개인 소감: 윤단비: 주인공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그녀가 ‘잊고 싶지 않은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방식은,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였다. 가난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온 일부가 되는 것이다. 정웅: 이 구간에서는 유독 ‘자기 혐오’와 ‘자기 긍정’이 공존하는 장면들이 많았다. 나는 그 모순이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정당화하며 살아간다. 그 복잡성을 작가는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안예찬: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연대감의 교차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시선에 맞서려 한다. 나는 그 미세한 균열 속에서 ‘존재의 흔들림’이라는 것을 깊이 공감했다.		

4주차	일시	5월 21일 16:00 공학관 A동 상상파크 플러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단비(2211181)	O
		정웅(2271209)	O
		안예찬(2071158)	O
	진도	도서명: 도둑맞은 가난	진도페이지: 30p. ~ 34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안예찬, 유상미 교수님, 정웅, 윤단비]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모임 개요: 대단원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구간에서는, ‘가난’이라는 주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 기억의 무게, 글쓰기의 윤리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소설은 조용히 끝났지만, 그 끝맺음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겼고, 교수님과 함께한 마무리 토론은 각자의 사유를 정돈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팀원 및 지도교수 개인 소감: 윤단비: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나는 한참을 멍했던 것 같다. 주인공이 회복한 것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글쓰기는 이 소설에서 구원의 행위이며, 기억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정웅: 책의 마지막에서 ‘도둑맞은’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과연 그것을 ‘도둑맞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 혹은 스스로 내준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이 작품이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보다도 열린 구조라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느꼈다. 안예찬: 작가가 결말에 이르러 보여주는 정제된 문장은 마치 침묵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폭발적이지만, 동시에 절제되어 있다. 삶의 고통은 말로 모두 담을 수 없으며, 때로는 침묵과 여백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유상미 지도교수님: 여러분의 감상과 해석이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기쁩니다. 『도둑맞은 가난』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함께 겪어야 하는 책입니다. 작가의 개인사가 우리의 역사와 만나는 순간, 문학은 사회적 기억의 저장소가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문학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윤리적 성찰과 정서적 치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윤단비 (2211181)	『도둑맞은 가난』을 읽으면서, 평소 익숙하게만 느껴졌던 ‘가난’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감정과 기억을 끌어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작가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다시 꺼내놓는다. 그래서 이 책은 회고라기보다는, 잊히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기록처럼 느껴졌다. 독서 클럽이라는 형식 덕분에 나 혼자 읽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들도 다시 보게 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내가 갖고 있던 해석이 흔들리기도, 확장되기도 했다. 특히 교수님과의 대화는 문학을 읽는 시야를 넓혀줬다. 책 속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현실이었고, 문학이 그걸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나에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도둑맞은’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는데, 읽고 나니 그 말이 단지 피해의 감정만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바라보고 말하려는 의지로 다가왔다. 이번 독서 활동은 그저 한 권의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 나 자신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준 시간이었다.
	2	정웅 (2271209)	‘도둑 맞은 가난’을 읽으며, 나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가난’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됐다. 박완서 작가가 그려낸 전쟁 직후의 삶은 단순히 배고프고 힘든 나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위태로워지는 시간이었고, 나는 그 속에서 가난이 얼마나 깊고 복합적인 감정과 상처를 품고 있는지 처음으로 체감했다. 이 작품은 개인의 회고가 아니라, 시대의 그늘에 가려졌던 현실을 문학으로 복원한 기록이었다. 특히 여성의 시선으로 그려낸 삶의 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였고, 자조와 유머 속에서도 절망을 견디는 생의 의지가 묻어났다. 그저 슬프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웃음 뒤에 숨은 고통과 복잡한 감정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토론을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의 자기 혐오와 자기 긍정이 얹혀 있는 장면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문학이 인간 내면의 모순을 어떻게 담아내는지에 대한 시야도 넓어졌다. 마지막 주차에 이르러 ‘도둑맞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히 빼앗긴 감정이 아니라, 사회와 시대 속에서 조용히 내어주게 된 상실이었고, 그 상실을 바라보려는 의지이기도 했다. 이번 독서 클럽 활동은 그저 한 권의 책을 읽는 시간을 넘어, 그 책을 통해 나 자신과 시대를 더 깊이 마주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3	안예찬 (2071158)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을 읽으며, 나는 우리가 흔히 ‘가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한 물질적 결핍이 아님을 절감했다. 이 책은 단지 전후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자전적 에세이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이름 붙이지 못한 상실들을 되짚어보는 일종의 정서적 복원 작업처럼 느껴졌다. ‘도둑맞은’이라는 표현은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그 말 속엔 단순히 물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감정까지 빼앗긴 감각이 담겨 있었다. 특히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가난은 더 깊고 복합적이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침묵과 체념, 그리고 그것을 견디기 위한 유머와 자조가 뒤엉킨 감정의 풍경이었다. 독서 클럽에서의 토론은 이런 감상을 더욱 확장시켜주었다. 나 혼자였다면 무심히 넘겼을 문장들이 다른 사람의 언어를 통해 다시 빛났고, 내가 느낀 감정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됐다. 특히 작가가 마주한 자기 혐오와 동시에 꺼안은 자기 긍정의 감정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과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단지 한 시대를 기록한 문학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책을 덮은 지금, 나는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